

공동체 소식



연중 제19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 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8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신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장 임명

- 임명일시: 8/1(월), - 신임회장: 임창주 베드로
- 신임 회장 및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위원 취임식: 8/14(주일) 교중미사 중.
※ 신임 평협회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평협회의 역할과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자비의 대회년 기도 모임’

- 일시: 8/7(주일) 오후 3:00
- 장소: 본 성당(스톤 채플)

8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8.13(토) 11:30부터.

캔사스 한인 공동체 ‘소프트볼 경기’

- 일시: 8/13(토) 오전 9:00-15:00,
- 장소: 헤리티지 파크(Heritage Park) 소프트볼 경기장.
※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선수들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안내

-미사: 8/15 오전10:00
※ ‘성모 승천 대축일’은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께서 신앙의 힘으로 하늘로 오르심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59	211	163	488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정예찬 미카엘
다음주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이원준 요한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신혜경 마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애찬 봉사자

금주	김화년, 안현숙, 정명숙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7/31	65명	285불	1,020불
문석찬, 정석원, 임수현, 강영진, 한봉경, 임창주, 박동희, 김태중, 박재천 (총 9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임창주 베드로
M: 913.961.5166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갑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종처럼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깨어 기다리다가,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성화해설

게으른 종 (니콜라스 마스, 1655년, 패널에 유채, 영국 국립미술관 소장)

니콜라스 마스의 ‘게으른 종’에서는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지럽게 물건을 늘어놓은 채 부엌에 앉아 졸고 있는 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인은 졸고 있는 종을 손으로 가리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 있는 종들!”(루카 12,37)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주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온힘을 다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8,6-9

<주님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의인들이여,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골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 독 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1-2.8-19<또는 11,1-2.8-12>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2-48<또는 12,35-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쉐 마

약속을 믿고 깨어 준비하라



1독서의 지혜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해방의 날 밤, 곧 이집트 탈출 때 하느님께서 예고하신 약속을 잘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 영광스럽게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2독서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사악을 그 징표로 되돌려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과 복음 환호송은 주님이 예상하지 못하는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니 항상 그분의 약속을 믿고 깨어 준비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전례의 주제는 하나같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분 약속을 믿고 깨어 기다리라’는데 집중됩니다.

하느님 약속을 믿고 깨어 기다리라는 이들은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한 이들입니다. 실제, 성경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2독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모두 믿음 속에서 죽어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다’고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던 기다림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확신에 찬 기다림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보고 들은 것을 확인하는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도를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우리는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영원한 생명을 깨어 기다리라고 하니, 또 종말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지금 현재는 그 영원한 생명, 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종말 때 주어질 것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이라면, 또 무엇이 영원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를 제외한 영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영원한 행복을 얻어 누리지 못하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라면 바로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원이 세상으로 들어와 세상이 영원을 담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종말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종말을 깨어 기다리면서도 종말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영원을 기다리면서도 영원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성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매 순간을 함부로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영원을 살고, 지금 현재 예수님과 더불어 살며, 지금 현재 종말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성인 말씀

하느님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업적보다 양심의 순수함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

- 십자가의 성요한 -

주춧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찾은 사마리아 여인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피해 유다 지역을 떠나 갈릴래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사마리아 지역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네는 성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몹시 지치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때는 정오쯤 되어 뜨거운 햇빛에 인적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4,1-7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자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이방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부탁을 하느냐면서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이든 이야기를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4,8-14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다 꿰뚫어 보시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사람들은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 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4,1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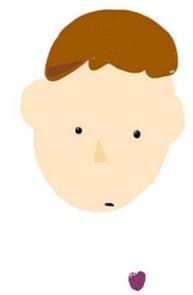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한 후 이민족들의 종교와 혈통이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주민들은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와 같은 존재들, 비열한 백성이라며 철저히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는 일부러 사람의 눈을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고 하나의 인간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기적을 알아보는 것
기적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삶이 기적이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루카 9,32)

- 임의준 신부